

다변화 사회의 춤 담론과 춤 생태계에 대한 고찰*

김수인**

- | | |
|-------------------|----------|
| I. 들어가는 말 | V. 나가는 말 |
| II. 춤 담론 내용의 다변화 | 참고문헌 |
| III. 춤 담론 방법의 다변화 | Abstract |
| IV. 춤 담론 매체의 다변화 | |

I. 들어가는 말

핵개인, 나노 사회, 평균 실종, N극화 현상, 파편화 시대. 다변화 사회를 검색하면 연관되어 나타나는 개념들이다. 『트렌드 코리아』는 2022년 나노사회, 2023년 평균실종을 트렌드 키워드로 꼽았다. 이런 사회에서는 대다수가 공유하는 가치나 기준이 사라진 공간에 개인들이 쪼개지고, 흩어지고, 홀로 서서 각자의 입장을 주장한다. 이 글에서 나는 ‘다변화 사회’를 이러한 개인주의-자유주의에 기반한 탈중심의 사회적 현상으로 보고 이러한 시대에 춤에 대한 담론의 내용과 방법이 어떠한 양상을 띠는지 탐색한다.

사실 개인주의-자유주의에 기반한 탈중심 경향은 이미 포스트모던 시대인 20세기 후반에도 관찰된다. 기성세대의 문화를 거부하고 나만의 개성과 다양성을 주장했던 세대는 1970년대의 히피족도 있고, 1990년대의 X세대도 있다. 당시 학문계 일반과 무용계에서도 포스트 이론들의 영향을 받아 담론의 방향이 변화되었다.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라고 할 수 있는 경향이 그중 하나인데, 문화적 과정과 의미체계의 사회적 구성적 역할을 탐색하는 것을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논의의 초점으로 삼는 것이다. 이전에는 실증주의에 기반한 과학적 탐색 방법을 지식 탐구의 핵심으로 삼았다면, 문화적 전환 이후로는 지식을 탐구하는 주체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파고들어 방법론적·이론적 초점으로 삼는다(Steinmetz, 1999, pp.1-2; Steven, 2007, p.x). 무용학에는 전통적 무용학 대신 비판적 무용학 경향이 등장하여 춤의 의미생성 과정과 그 의미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과정을 고찰하였다. 그러면서 무용학의 경계가 크게 확장되어 기존에 연구대상과 방법으로 삼지 않았던 것들이 도입되었고, 간학문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본 논문은 2023년 한국무용예술학회 제28차 학술발표회(서울: 서울여자대학교)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성균관대학교 무용과 강사, algedi4236@gmail.com

21세기의 진입 이후 2번의 십 년이 지난 지금, 개인주의-자유주의에 기반한 탈중심 경향은 온 사회를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함께 더욱 첨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초개인을 넘어 핵개인이 오늘날의 특징을 표현하는 용어로 제시된다(송길영, 2023). 개인 중심의 다변화된 욕구를 제한하는 모든 것을 권위적이라고 느끼는 핵개인은 전통적 준거집단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 의사결정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시대에 춤에 대한 담론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개인 중심의 다변화된 욕구를 지탱하는 사회를 반영하고, 전통적 춤 담론 질서로부터 자유로워진 내용, 방법, 매체를 추구한다. 나는 이 글에서 다변화 사회에서 행해지는 춤 담론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고찰하고 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한다.

우리 사회의 다변화에 관한 담론이 예술 및 무용에 관련될 때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선행연구가 관찰된다. 첫째는 다양한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다. 세계화와 더불어 다문화사회의 특징이 선명해졌고 이러한 현상은 예술분야에서도 중요 논제로 다루어졌다.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중 “글로벌 시민성, 문화 정체성과 예술교육”이라는 워크숍은 “다변화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예술교육”을 다양한 문화 정체성의 공존을 위해 주장하였다(아르떼365, 2010.06.01.). 한편 한 문화 안에서도 기존에 소외되었던 인구 그룹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진다. 강보라(2018)는 미술관이 소수 특권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다양한 연령과 계층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다. 춤 분야도 마찬가지로 홀리스, 장애인 등 소외되었던 인구 그룹에 대한 연구들이 다변화 사회에 관련된 연구의 한 축을 이룬다(정서운, 김종원, 2023; 박은지, 2023; 서연수, 2021; 백민경, 2014). 다양한 연령과 계층 및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예술 관련 선행연구는 방대하며, 다루어지는 인구 그룹도 세분화되어 기존에 예술 담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집단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둘째, 전통적인 무용 공연에서 변화하는 경향들을 고찰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지영(2003)은 21세기 무용의 다변화 현상으로 비디오 댄스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춤을 기존의 극장에서 탈피한 춤으로 지적한다. 장지원(2015)은 “현대무용예술의 다변화 현상에 관한 연구”에서 융복합 현상, 렉처 퍼포먼스, 미디어아트, 커뮤니티 작업, 춤아카이브를 다변화 현상의 주목할만한 요소들로 지적하였다. 김정은(2017)의 “무용 전지구화와 한국춤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춤의 문화상품화, 춤의 정보통신화, 춤의 네트워크화, 춤의 컨템포러리화, 그리고 춤의 역설공존화라는 다섯 가지 특징을 오늘날의 특징으로 설명하였다. 최효진(2020)은 오늘날 댄스문화의 연구주제를 디지털미디어 댄스, 한국 춤 대중화, 댄스축제, 지역댄스문화, 댄스와 사회문화, 댄스관련 프로그램으로 토픽모델링하였다. 그는 현재 사회의 중요 이슈인 한류, 고령화, 다문화화 등의 이슈를 춤 문화 연구주제에서 집중해야 할 방향으로 지적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다양하고 세분화된 인구 그룹; 둘째, 현대사회의 지배적 트렌드인 디지털화, 글로벌화; 셋째, 기존 관습을 탈피하거나 해체하는 탈중심; 넷째, 융복합 및 학제간 경향이 춤 분야의 다변화 현상의 주요 논제로 거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춤 담론이 아닌 춤 현상으로 다변화에 접근하는 것과 달리, 나는 춤 담론 영역에서 그 내용, 방법, 매체가 그 다변화 현상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위에서 지적한 네 가지 다변화 현상이 춤 담론의 내용, 방법, 매체라는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양상을 논의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다양한 서적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헌연구의 방식을 취한다. 다만 광범위한 주제에서 연구의 초점을 잡기 위해 학계 현상과 이벤트를 포함한 선행 연구 활동에 대한 메타연구에 집중한다. 주로 한국의 춤 담론과 활동의 특징을 분석

하지만, 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외의 춤 담론 경향을 함께 소개한다. 또 담론이라고 함은 어떤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담화와 논의이기 때문에 꼭 학술적 연구에 국한될 필요는 없으나, 나의 전문 분야가 무용이론인 관계로 학술 연구 분야에 집중되는 것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II. 춤 담론 내용의 다변화

1. 대중춤 연구의 약진

춤 담론의 전통적 주제는 예술춤 전문가인 무용가, 무용사에 남을 만한 대표적 무용작품, 춤 내부 구조를 탐구하는 무용미학에 대한 비평과 연구이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주제의 춤 담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에 집중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내용의 다변화가 관찰된다. 특히 비판적 무용학 영역에서는 무용학이 탐구해야 하는 연구 대상의 범위 경계선이 없어진 만큼 다양한 춤 현상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예술춤에 집중했던 기존 관습으로부터의 탈피가 관찰된다. 극장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담론에 비해, 오늘날에는 비-전문가의 춤, 여흥춤, 관습적 춤, 상업적 춤을 아우를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춤이라 불리지 않는 영역의 움직임까지 연구의 영역으로 다룬다. 특히 대중춤 영역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돋보이는데, 2014년 『춤과 대중적 스크린』(Dance and Popular Screen), 2022년 『힙합 댄스 스테디즈(Hip Hop Dance Studies)』 외에도 오주연의 『케이팝 댄스: 소셜 미디어에서 너 자신을 팬덤화하기(K-pop Dance: Fandoming Yourself on Social Media)』(2022)는 대중춤 영역 중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케이팝의 댄스를 학술적으로 고찰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실용무용이 교육기관에 독립된 전공이나 학과로 생기기 시작하면서 관련 논문이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을 전후하여 이전에는 하위문화로 다루어지던 실용무용이 이후 전공생 교육에 관련된 주제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인다(김수인, 송유리, 2019, p.79 참조). 2022년에는 대한실용무용학회와 한국실용무용학회가 창설되어 이 분야의 학술 전문인을 모으고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학술대회와 논문집을 발행하고 있다. 실용무용에 대한 논의는 이 분야의 확장과 함께 단순히 대중춤이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 즉 예술, 교육, 스포츠 등으로 다변화하고 있다.

2. 생활 속 춤의 정치성 탐구

춤 담론의 또 다른 경향은 학문적 담론이 사회적 문제와 적극적으로 엮이며, 때로는 행동주의적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2017 『춤과 정치학』(Dance and Politics)은 춤이 좁은 의미의 정치와 연관되는 지점뿐 아니라 몸과 움직임에 내재한 정치적 본성을 조명하는 다양한 연구를 다루었다. 게이 모리스(Gay Morris)와 옌스 리처드 기어스도프(Jens Richard Giersdorf)가 공동편집한 『21세기 전쟁의 안무들(Choreographies of 21st Century Wars)』은 이집트의 봄, 인도-파키스탄 국경 국기 게양식, 미국 군대 모병을 위한 훈련 시뮬레이션까지 다양한 현상에서 몸 움직임을 안무로 읽어내는 작업을 한다. 그 밖에도 환경오염 문제나 저작권 문제, 인종차별 문제 등 사회적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촉구하

는 연구들이 소개되었다. 조정만의 「춤, 의례, 일상적 몸짓 속의 몸과 대지: 생태학적 연결에 대한 사례 연구」는 에코소메틱 등 관련 개념들에 대한 리뷰와 더불어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 생태적 세계 속으로 몰입하는 존재론적 변화를 추구한다.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 최근 십년 간 빠르게 늘어났는데, 법과 제도에 대한 분석, 저작권 침해를 가늠하는 기술적 판별 도구에 대한 연구, 대중문화산업에서의 춤, 그리고 무형문화재 및 전통춤의 저작권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수인, 2023 참조). 한국에서는 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작권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법제를 정교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영어권에서는 저작권이라는 제도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의하며 춤에 대한 사유재산의 강화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질문한다. 안씨아 크라우트(Anthea Kraut)의 『저작권 안무하기: 미국 무용의 인종, 젠더, 그리고 지식재산(Choreographing Copyright: Race, Gender, and Intellectual Property in American Dance)』(2015)와 크리스 라베토-비아줄리(Kriss Ravetto-Biagioli)의 「근데 누구 춤이지?: 재산, 저작권, 그리고 공유재산(Whose Dance Is It Anyway?: Property, Copyright and the Commons)」(2021) 등은 지식재산의 개념이 기초하고 있는 사회적·철학적 근거를 탐색하여 명확하게 사유화되지 않는 춤의 복잡성을 논의한다. 또 다른 사회 참여적 성격의 춤 담론으로는 작품과 인물의 사회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재성찰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춤 담론 질서에서 중요한 예술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들의 사회적 비위사실을 밝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루돌프 본 라반과 마리 비그만의 친나치 활동에 대한 해외의 연구와 좀더 최근에 진행된 최승희, 조택원의 친일활동에 대한 국내 연구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리온 칸트(Marion Kant)는 라반에 대한 연구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당신이 존경하던 인물에 대해 나치와의 연관성이 적힌 유쾌하지 못한 자료를 발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를 바꾼다, 아무도 찾지 못하게 자료를 폐기한다, 무시한다, 울음을 터트린다, 자료관에 화를 낸다, 진정하고 생각한다(Kant, 2004, p.107). 칸트의 이러한 질문은 무용사 담론을 떠받치는 질서에 대해서 재성찰할 수 있는 순간을 제공한다. 동시에 춤 담론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초월적인 관찰자가 아닌 현실사회에 뿌리박고 있는 개인임을 깨우치게 한다. 이러한 깨달음은 나의 편견과 한계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며, 종이 위 기록이 아닌 생활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춤 담론의 정치성을 인식하게 한다.

3. 다양한 인구 그룹에 대한 주목

다변화 사회의 춤 담론은 무용 전문인에 집중하기보다 공동체의 다양한 일원들로 시야를 돌린다. 여성과 퀴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이후 좀더 최근에는 한국 사회에서 새롭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목받는 인구 그룹에 대한 담론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 장애인, 노인, 노숙인, 탈북자,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주제들이 활발히 다루어졌다. 이전에는 춤 분야에서 소외되었던 이러한 인구 집단들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축제 행사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특히 장애 무용의 경우는 춤 프로그램의 수혜자로서의 입장을 넘어 춤 창작자 혹은 생산자의 위치가 적극적으로 탐색되고 있다(임현숙, 임경원, 2022; 류진욱 외, 2021). 장애와 연관된 주제로 치매는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함께 노인 무용과 함께 다루어진다(전미양 외, 2020).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일반적인 현상이 된 이후 그들의 경험과 북한춤에 대한 관심도 동반상승하였다(권혜인, 2020; 전해미, 배귀영, 2020). 전형적인 연구논문

외에도 무용역사기록학회의 탈북무용가 대상 다큐멘터리 퍼포먼스 <몸의 이주>(2021) 등도 이러한 관심을 반영한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한 춤 프로그램과 연구도 활발한데,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가정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무용치료 및 무용교육 분야가 탐색되고 있다(이지영, 전용균, 2022; 정윤희, 2021; 박정선, 2019). 이렇듯 예술춤 전문가로부터 확장된 인구 그룹들이 춤 담론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담론의 대상일 뿐인지 담론의 주체인지에 대한 연구는 좀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4. 유학생의 증가와 국제적 춤 담론

한편 오늘날 춤 담론의 경향은 국제화인데, 그중에서도 한국에서 관찰되는 특징적인 측면은 중국 유학생의 증가와 함께 중국의 춤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춤계에서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국제춤행사와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해외 무용인들과 소통하였고,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후 귀국한 인물들을 통해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왔다. 하지만 좀더 최근에는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들이 학위논문을 쓰면서, 중국과 관련된 연구의 수가 많아졌다. 한국이 아니면 서양의 춤을 위주로 다루었던 이전에 비하면 학문적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표되는 중국 춤 연구는 그 질의 차이가 크다. 언어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문제들도 다양하다. 일례로 한국에서 발표되는 논문인데도 모든 참고문헌을 중국 문헌으로 구성해서 이미 한국의 무용연구자들에게 알려진 관련선행연구들이 고려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점차 국제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서로 간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야할지 고민하게 한다. 논문이 단지 경력을 위한 스펙이 아니라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을 목표로 한다면 독자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선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은 그 내용뿐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도 고려해야 할 많은 사항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점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겠다.

II. 춤 담론 방법의 다변화

1. 비평 방법의 다변화

춤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는 전통적 방법은 저널리즘 중심의 비평과 아카데미 중심의 연구이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분야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으나 그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먼저 무용비평의 경우 그 등장배경이자 조건이었던 언론매체가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언론을 지배했던 신문이라는 매체가 인터넷을 비롯한 뉴미디어의 등장 이후 세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또한 작가주의에 기반한 극장무용에 주로 집중하는 특성도 극장무용을 다른 춤 형식들과 차별화된 특별한 영역이라고 보는 관점이 도전받은 20세기 말 이후 전통적 무용비평의 영향력이 축소하는데 일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학술 연구를 하는 무용인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무용의 이론적 측면을 다루던 비평가의 역할도 분산되었다. 무용비평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미국의 무용비평은 오늘날

20세기 초중반과 같은 영광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2015년에 매디슨 메인웨어링(Madison Mainwaring)은 “미국 무용 평론가의 죽음: 예술 형식을 다루는 주류 매체가 왜 그렇게 적은가? (The Death of the American Dance Critic: Why are there so few mainstream outlets covering the art form?)”라는 기사를 썼고, 재커리 휘텐버그(Zachary Whittenburg)는 2023년 댄스 매거진에 “미국의 무용 비평 부족이 국제 무용가의 비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How a Lack of Dance Criticism in the U.S. Affects International Dancers’ Visa Applications)”이라는 기사를 썼다. 휘텐버그는 미국의 주류 미디어가 더 이상 무용비평을 다루지 않은지 오래되었고, 오늘날 춤에 대한 비평적 대화는 훨씬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고 말한다. 그가 예로 든 다변화의 영향요소는 청중 참여 프로그램, 비디오 기반 네트워크의 알고리즘, 이미지 중심의 경제이다.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공식적인 매체를 통한 권위있는 평론 외에 원자화된 개인들의 춤비평이나 리뷰가 번성하고 있다. 소수의 엘리트 평론가에게만 집중되던 비평의 부담이 개인 감상자에게로 분산되는 것이다. 이는 다음 절에서 다룰 매체의 다변화와도 관련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수에 집중되는 단극화 현상을 이끌기도 한다. 휘텐버그에 의하면 국제 무용가의 비자 신청에는 비평이라는 근거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받은 소수의 무용단들이 더 국제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순환되는 닫힌 생태계는 에코챔버(echo chamber)나 필터 버블(filter bubble)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비평을 받는 소수와 비평이 미치지 않는 다수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2. 연구 방법의 다변화: 방법론으로서의 안무

다음으로 무용연구의 방법론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무용학의 방법론적 영역은 역사, 미학, 동작분석으로 시작하였으나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비판 이론과 학제간 연구가 증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좀더 최근에 주목할만한 연구방법론적 특징은 ‘안무’를 연구의 내용 뿐 아니라 방법론 및 분석틀로 삼는 경향이다. 게이 모리스와 옌스 리처드 기어스도프가 공동편집한 『21세기 전쟁의 안무』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춤 개념에서 안무로 그 초점을 이동한다. 여기서 안무의 의미는 더욱 광범위한 움직임 형성을 형성하는 다양한 선택과 결정의 조합으로써, 그 과정은 특정한 세계관을 전달하는 정체성 코드들의 특정한 제작을 포함한다. 21세기 전쟁의 안무는 우리세계에 벌어지는 다양한 분쟁의 현장에서 몸의 움직임이 어떠한 세계관, 어떠한 정체성 코드, 어떻게 특정화되는 제작을 통해 선택되고 결정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틀이 된다. 국내의 연구 중 김재리의 “확장된 안무의 장에서 수행적 드라마투르기”는 확장된 안무 개념을 미셸 푸코와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장치(apparatus) 개념으로 해석하며 “춤과 관점과 의미의 관계를 조직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했다(김재리, 2019, pp.88-89). 이에 따르면 안무를 한다는 것은 몸에서 작동하는 정치, 사회의 구조와 권력의 방식을 탐색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김재리의 논의는 컨템퍼러리 댄스의 영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여기서 거론되는 안무가들의 리서치 지향적 작업방식은 기존에 이분화되었던 이론과 실기의 융합이라는 연구 양식의 다변화를 예시한다.

3. 연구 방법의 다변화: 실천 연구

이론과 실기의 융합은 춤 담론의 방법론에 새로운 형식들을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실천연구, 렉처퍼포먼스, 수행적 아카이브, 그리고 다매체적 전시를 예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천연구라고 부르는 것은 PAR(연구로써의 실천), PBR(실천기반연구), PLR(실천주도연구)을 통칭한다(김수인, 2022). 한국에서 2010년대 이래 꾸준히 주목받은 방법론으로, 학술적 의미 뿐 아니라 실용적 측면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춤추는 몸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법과 체험적 앎에 대한 강조는 무용에서 소매틱스(somatics)와 함께 논의되었다(조기숙, 2013; 한혜주, 2016; 조기숙, 조정희, 2012). 이는 몸이 창조적 산물의 객체이자 주체로 기능하는 무용 분야에서 단지 결과물인 작품에 국한하여 실제 수행과 실천이 일어나는 몸을 소외시켰던 기존 연구 패러다임을 극복하는 돌파구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방법론이 아카데미의 제도 안에서 인정받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실천연구는 그 특성상 연구주제와 대상에 따라, 그리고 실천의 방식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포괄적인 연구양상을 띠기 때문에 실천에 기반하기만 한다면 어떤 형태의 결과물이든 연구로 간주할 수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나, 이를 학문적으로 의미있는 지식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맥나마라(McNamara, 2012)가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연구자 자신이 연구주제가 되면서 연구질문은 잊혀지기 쉽다는 점이다. 물론 연구자의 체험을 연구 질문으로 끌어올 수 있겠지만 경험이라는 주관적 특질을 어떻게 학문 공동체에 의미있는 연구 질문으로 주조해낼 수 있는가라는 매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실천 연구의 실천(practice)을 한국어로 “실기”로 번역하면서 기존 테크닉 연마 및 작품 발표 중심의 실기 관행에 비취 practice를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특이점도 있다. 그런 경우 실천을 행위자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과정이자 행위(praxis)이자 인식(episteme)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작품을 공연한다는 좁고 특정한 의미로 간주한다. 이러한 두 가지 난점은 무용의 실천 연구에 관해 이야기하는 다양한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더 치밀하고 집요한 고찰이 필요하다.

4. 연구 방법의 다변화: 리서치 퍼포먼스

실천연구와 마찬가지로 실기와 이론의 융합을 추구하는 춤 담론의 또 다른 형태는 렉처퍼포먼스이다. 한국에서 렉처 퍼포먼스로 논의된 대표적인 두 사례는 제롬 벨의 <베로니크 두아노>(Véronique Doisneau)와 수잔 리 포스터의 공연된 렉처(performed lectures) 시리즈이다(김현정, 2018 참조). 그러나 김현정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용어는 여러 다른 의미로 사용되거나 유사한 다른 명칭과 함께 혼용된다. 본 발표에서 내가 주목하는 최근의 사례인 무용역사기록학회의 리서치공연들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지칭된다. 2022년 발표된 <Reconnect History: Here I Am>의 경우 “실천적 연구,” “실행 연구,” “도큐먼트퍼포먼스,” “렉처퍼포먼스와 아카이브전시의 혼합,” “리서치가 특화된 공연,” “퍼포먼스와 실행 연구논문의 프레임,” “리서치퍼포먼스” 등의 표현이 쓰였다. 표현이 다양한 만큼 아직 정형화되지 않은 이론과 실기의 융합 형태들이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탈북무용가 대상 다큐멘터리 퍼포먼스 <몸의 이주>(2021), 신민요춤의 재현복원공연 <신민요춤의 재발견>(2021), 도큐먼트 퍼포먼스 <Reconnect History: Here I Am>(2022), 전통춤의 리서치안무 <코리아그래피>(2023), 식민지시대 영상자료에 대

한 <Reconnect History II: 각선의 약동>이 연속적으로 발표되었다. 이 시도들은 기존의 춤 담론의 질서를 낯설게 보게 하겠다는 의도를 가진다. 그러나 여전히 기존의 질서에 의존하는 부분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는 못한다. 나는 댄스포스트코리아를 통해 발표한 나의 다른 글에서 <Reconnect History II: 각선의 약동> 제작과정에 참여한 나의 경험을 성찰하며 개선점과 과제를 짚어보았다. 일련의 리서치 퍼포먼스는 무용계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받았지만, 단지 새로움에만 머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필요성을 공감받기 위해서는 참여자간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이 더욱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연구 방법의 다변화: 질적 연구

기존의 연구방법 관습에서 탈피한 대표적인 것은 질적 연구 경향이다. 국내 무용학계에서도 201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연구경향이다. 나의 2014년 논문은 미국과 한국 무용학계의 질적 연구와 학문적 글쓰기 동향을 비교하였다. 9년이 지난 2023년의 질적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도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써내는 글쓰기 방법은 여전히 실증주의적 글쓰기 관습에 머물고 있다. 예를 들어, 질적 연구 논문에서 연구자 자신을 1인칭 ‘나’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많이 발견하기 어렵다. 연구의 제한점에도 종종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임을 배제할 수 없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이런 사항을 볼 때 질적 연구가 지향하는 학문적 목표와 사상적 근거가 어떻게 실증주의의 객관성으로부터 벗어나는지에 대한 더 치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질적 연구에서 또 중요한 것은 연구윤리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번역 명칭으로 불리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나 소속이 없는 자유 연구자라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계속해서 연구 윤리 및 출판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할 것이 춤 담론의 방법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질적 연구에 대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은 질적 연구를 손쉬운 연구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이다. 양적 연구보다 다루어야 하는 참여자의 수가 훨씬 적고, 어려운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심층면담을 연구방법으로 채택해놓고, 면담 질문지는 양적연구의 설문지가 물을 만한 객관적 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표면적 데이터를 얻는 경우들이 관찰된다. 심층면담은 표층적 설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참여자의 심층적 태도나 관점, 현상적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 취합 차원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연구를 실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이전에 질적 연구의 철학적 배경을 면밀히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6. 연구 방법의 다변화: 다매체적 전시

최근 전형적인 학술대회 외 연구가 발표되는 포맷은 학술전시행사가 있다. 예를 들어, “텔유어바웃히: 80년대 이후 한국 페미니즘 무용”(2020), “춤에 관한 노래는 적어도 9개는 필요하지”(2023), “스트릿X스테이지X미디어”(2023) 외에도 다양한 전시행사가 학술적 내용을 발표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런 전시행사는 연구의 주제 외에 수집한 자료를 문헌, 인터뷰 녹취, 이미지, 영상, 오디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전시하고 관람객이 자유롭게 돌아보게 한다. 여기에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퍼포먼스, 대담 등이 추가

되어 전시의 주제를 복합적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전시는 학술대회나 퍼포먼스와 달리 관람객을 움직이게 하는 특징이 있다. 움직이는 관람객은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볼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다. 소규모 전시에서는 발표자, 큐레이터, 작가와 더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워크숍이나 토크,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관람객 간의 소통도 전형적 학술대회보다 좀더 시도된다. 이렇게 학술전시는 관람자가 다양한 매체로부터 능동적으로 의미를 직조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춤 담론이 생산, 유통, 수용되는 양상에 새로운 경향을 제시한다.

IV. 춤 담론 매체의 다변화

전통적 춤 담론 매체는 공식 저널리즘인 신문, 잡지를 통한 비평과 인터뷰 그리고 학계의 연구논문과 단행본 등 출판물과 더불어 학술발표가 대표적이다. 출판물의 경우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전자화되어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화는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춤 담론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공적 담론과 사적 담론이 공존하는 것을 넘어 이 두 가지가 뒤섞인다는 것이다. 둘째는 온라인을 통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상이한 소통 방식들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1. 공적 담론과 사적 담론의 공존

먼저 공적 담론과 사적 담론의 공존은 뉴미디어의 역할이나 특징과 함께 이해해볼 수 있다. 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기기,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는 높은 접근성, 쌍방향 소통, 이용자의 자유로운 참여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뉴미디어 환경에서는 가족과 친교와 같은 사적 영역과 업무의 공적 영역이 모두 원격화되고 네트워크화된다(어리, 2022). 기존에는 노출되지 않았던 사적 영역이 뉴미디어의 콘텐츠로 급격히 각광받으면서 사적 담론도 공적 담론과 마찬가지로 대중에게 유통된다(Foster, 2017 참조). 개인 네트워크가 성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 경제가 형성되자 네트워크 자본이라는 새로운 자본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춤 담론은 전통적으로 권위를 가지던 공적 담론 매체 외에 개인 블로그, 소셜미디어 계정, 유튜브 방송, 팬 카페와 같은 사적인 담론이 넘쳐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사적 담론이 공적 담론보다 제도권에서 권위를 덜 가지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강점을 가진다. 왜냐하면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은 즉시 디지털화되어 빅데이터의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언어로 구성되는 담화 외에도 조회수, 좋아요 수, 구독자 수, 팔로워 수, 해시태그, 리트윗,ダンス챌린지 수 등의 양적 데이터가 춤 콘텐츠의 파라텍스트(para-text)를 이루는 동시에 대중적 가치를 가시화한다. 비록 사적 담화가 공적 담화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항상 맞는 말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전문가들도 개인 채널을 통해 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충돌

다음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은 다양한 충돌 지점을 드러낸다. 진정한 의사소통이 되려면 언어능력

(linguistic competence) 뿐 아니라 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이해가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언어적 프로젝트는 거의 언제나 번역·통역의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것은 단어를 바꿔쓰는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언어는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다른 글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번역·음역·로마자화의 문제를 다루었다(Kim, 2021). 존중과 배려를 의도했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뿐이다. 더불어 각 나라의 연구 경향, 생태계, 출판 스타일은 각각 다른데, 이를 실어 나르는 언어권의 이론적 지향이 특정한 구심점을 형성하는 현상도 지적하였다. 영어권 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과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내 학자의 관심 영역 사이에는 아직까지 간극이 있다. 해외에서 아무리 유명한 학자를 모셔와도 그닥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국제교류행사 및 다언어 프로젝트에 여러 번 참여해본 나의 경험으로는 상호 간의 인내와 배려가 지리할 정도로 끊임없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는 한국인의 이름을 영어 표기하는 것부터 많은 논의와 타협이 필요하다. 어떻게 써야 독자들이 헛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영어로 쓰는 거니 영어권의 문화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 로컬의 문화와 원칙은 무시되어야 하는 것인가? 공통의 논의를 위해서 다변화한 개인의 요구를 어디까지 존중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충돌과 갈등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방해물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되기를 희망한다.

출판물이 아닌 학술발표의 경우에도 원격회의기술을 이용해서 해외 참가자들이 발표와 질의를 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웨비나라고 하는 온라인 세미나로 특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비대면 학술적 교류는 코로나 기간 동안 더욱 강화되었다. 의약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지원을 1년 더 연장하여 2024년까지 지원한다(이현주, 2023). 이러한 환경적 전환은 학회 국제화의 흐름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학술대회의 장점은 분명하다. 레안드로 로드리게스 메디나와 웨슬리 슈럼(Leandro Rodriguez Medina & Wesley Shrum, 2022)에 의하면 접근성 확대(지리적 다양성과 경력 단계의 다양성), 탄소 배출 감소, 여행 및 운송 비용 절감, 사후 재시청 가능성이 장점으로 지적되었다. 반면 사교와 교류가 어렵다는 점은 단점으로 거론된다. 그래서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 학회의 학술 내용과 정보만 얻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 참여가 효과적이지만, 공동연구나 경력 측면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사교나 유대 혹은 심도 깊은 토론은 오프라인이 유리하다(송수현, 2022; 신대현, 2022). 다국적 학술행사에서 정보 이상의 소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더 세심하고 사려깊은 구성이 요구된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 질의 응답 이상의 소통을 기대하기 힘들다. 개인적으로는 줌 회의에서 ‘나가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일어나는 급작스런 단절이 인상적이다. 방금 들은 정보를 소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내 해석이나 호기심을 옆의 동료와 나눌 기회도 없다. 아쉬운 점이 생겼을 때 그 사정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도 힘들다. 맥락이 제거된 정보는 디지털 화면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학술대회의 온라인화가 가져올 변화인 국제화의 가속화 그리고 정보가 교류와 분리되는 현상은 춤 담론의 양상을 신속하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춤 담론의 내용, 방법, 매체의 다변화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춤 담론의 내용, 방법, 매체의 다변화

분류	다양한 정체성	디지털, 글로벌화	기존 관습 탈피	융복합 및 학제간
춤 담론 내용	예술춤 전문가로부터 확장된 인구 그룹	해외유학생에 의한 연구의 국내 발표 증가	대중춤분야의 학문적 약진	사회정치적 관심과 행동주의
춤 담론 방법	개인 감상자의 춤 리뷰 번성	블로그, SNS, 유튜브 등 인터넷 기반	질적 연구 학술전시행사	연구로써의 ‘안무’ 개념, 실천 연구, 리서치 퍼포먼스
춤 담론 매체		온라인 컨퍼런스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공적 담론과 사적 담론의 공존 및 혼합	

V. 나가는 말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춤 담론의 내용, 방법, 매체는 다변화 사회의 키워드인 개인주의-자유주의에 기반한 탈중심 경향을 드러낸다. 특히 다양한 정체성 그룹, 디지털·글로벌화, 기존 관습 탈피, 그리고 융복합 양상으로 집약되는 춤의 다변화는 담론에 적용했을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드러낸다. 먼저 춤 담론 내용의 다변화로 대중춤분야의 약진, 사회정치적 관심, 예술춤 전문가로부터 확장된 인구 그룹, 해외유학생에 의한 연구의 국내 발표 증가가 관찰된다. 또, 춤 담론 방법의 다변화로 비평가 연구 방법의 변화된 경향인 사적 평가, 연구로써의 ‘안무’ 개념, 실천 연구, 리서치 퍼포먼스, 질적 연구, 학술전시행사가 돋보인다. 다음으로 춤 담론 매체의 다변화로 온라인화가 이끈 플랫폼 네트워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컨퍼런스의 영향을 지적할 수 있다. 이처럼 기존 춤 담론의 중심 주제, 인물, 지역, 방법론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확산되는 가운데 새로운 요소들과 뒤섞이는 양상을 보인다.

다변화 사회의 춤 담론은 다변화가 품고 있는 음양을 모두 반영하고 형성한다.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면서도 불확실하고 변덕스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분분투하는 무용인들의 삶에 기반하고 있다. 담론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매체가 변화하는 양상은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 개인 무용가들과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담론 주체들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춤 담론의 다변화와 연관되는 춤 생태계의 다변화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칸, 세이머스 라만(2019). 특권: 명문 사립 고등학교의 새로운 엘리트 만들기 (강예은 역). 후마니타스. (원저출판 2012).
- 샌델, 마이클(2020). 공정하다는 착각 (함규진 역). 와이즈베리. (원저출판 2020).
- 송길영(2023). *시대예보: 핵개인의 시대*. 교보문고.
- 어리, 존.(2022). *모빌리티* (김태한 역). 앨피. (원저출판 2007).
- 일루즈, 에바(2010). *감정 자본주의: 자본은 감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김정아 역). 돌베개. (원저출판 2007).
- Blanco Borelli, Melissa(ed.)(2014). *The Oxford Handbook of Dance and the Popular Screen*. Oxford University Press..
- Fogarty, Mary & Imani Kai Johnson(eds.)(2022). *The Oxford Handbook of Hip Hop Dance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 Foster, Susan Leigh(1997). Dancing Bodies. *Meaning in Motion: New Cultural Studies of Dance*, Jane Desmond (ed.). Duke University Press, 235-257.
- Kant, Marion(2004). German Dance and Modernity: Don't Mention the Nazis. *Rethinking Dance History: A Reader*, Alexandra Carter(ed). Routledge, 107-118.
- Kowal, Rebeah J., Gerald Siegmund, and Randy Martin(eds.)(2017). *The Oxford Handbook of Dance and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Kraut, Anthea(2015). *Choreographing Copyright: Race, Gender, and Intellectual Property in American Dance*. Oxford University Press.
- Morris, Gay & Jens Richard Giersdorf(eds.)(2016). *Choreographies of 21st Century Wars*. Oxford University Press.
- Oh, Chuyun(2023). *K-pop Dance: Fandoming Yourself on Social Media*. Routledge.
- Steinmetz, G.(1999). *State/Culture: State-Formation after the Cultural Turn*. Cornell University Press.
- Steven, B.(2007). "Culture Turn". (Ritzer, G. Ed.). *Blackwell Encyclopedia of Sociology*.
- 강보라(2018).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미술관 : 다변화시대의 교육적 역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혜인(2020). 국내 탈북자 토크쇼를 통한 북한춤의 현황 및 의미 연구 : <모란봉클럽>과 <이만갑>을 중심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 29(6), 789-810.
- 김경은(2017). *무용 전지구화와 한국춤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미영(2009). 능력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해체 : 능력·공과·필요의 복합평등론. *경제와 사회* 84, 256-277.
- 김수인(2014). 한국과 미국 무용학회지의 질적 연구와 학문적 글쓰기 동향: 나와 본 연구자 사이. *무용예술학연구* 49(4), 21-45.
- 김수인(2023). 댄스IP와 춤 저작권의 개념에 대한 고찰. *한국실용무용학회*, 1(1), 21-30.

- 김수인, 송유리(2019). 스트릿댄스 용어에 대한 인식 현황과 정전화 현상 : 한국 스트릿댄스계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55, 75-109.
- 김재리(2019). 확장된 안무의 장에서 수행적 드라마투르기. **무용역사기록학**, 54, 81-108.
- 김현정(2018). 렉서 퍼포먼스 속 '춤추는 몸'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3), 111-130.
- 김홍중(2009). 육화된 신자유주의의 윤리적 해체. **사회와 이론**, 14, 173-212.
- 류진옥, 김지영, 홍애령(2021). 장애예술에 참여하는 무용가들의 문화다양성 수용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한국무용과학회지**, 38(1), 45-67.
- 박은지(2023). 우리춤사위를 활용한 노인헬스요가 프로그램 개발. **영남춤학회지**, 11(2), 83-105.
- 박정선(2019). Teaching Korean Dance Traditions Across Cultures -A New Approach. **무용예술학연구**, 75(3), 1-18.
- 백민경(2014). 흠리스의 무용활동 사례연구. **한국무용연구**, 32(2), 149-172.
- 서연수 (2021). 여성 노인의 뇌 건강을 위한 부채춤 효과연구 : 뇌파측정방법을 중심으로. **한국무용학회지**, 21(2), 69-78.
- 이지영(2003). 21세기 패러다임에 따른 무용의 다변화 양상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영, 전용균(2022). 동남아시아 지역 출신 다문화 가정 기혼 여성의 무용/동작 치료를 통한 웰니스적 가치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7(1), 87-92.
- 임현숙, 임경원(2022). 지적장애 무용단원의 생활세계를 통해 바라본 무용활동의 교육적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25(2), 75-117
- 장지원(2015). 현대무용예술의 다변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예술연구**, 11, 101-118.
- 전미양, 윤치양, 진미정, 이동현, 정현철(2020). 한국 춤을 기반으로 한 유산소 운동이 치매노인의 혈관건강, 근력 및 균형에 미치는 영향.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27(3), 12-24.
- 전혜미, 배귀영(2020). 탈북여성노인의 생애 기억에 담긴 감정정화 경험에 관한 생애사 연구 -민요춤 체험을 통한 접근. **영남춤학회지**, 8(1), 155-173.
- 정서윤, 김종원(2023). 방과외 활동으로서의 댄스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초등학교생의 문제행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38(2), 165-179.
- 정옥희(2018). 기술자본 담론과 고등무용교육의 미래. **무용예술학연구**, 69(2), 1-28.
- 정옥희(2023). 국제발레콩쿠르 경쟁 담론의 전환. **대한무용학회논문집**, 81(2), 355-378.
- 정윤희(2021). 다문화가정 학습자를 위한 한국 전통춤 교육방안-마이크로 러닝을 활용한 날피복춤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8, 115-152.
- 조경만(2022). 춤, 의례, 일상적 몸짓 속의 몸과 대지 : 생태학적 연결에 대한 사례 연구. **무용역사기록학**, 65, 3-35.
- 조기숙(2013). 무용에서 '실기에 기반을 둔 연구'에 관한 고찰- 개념과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무용기록학**, 31, 229-255.
- 조기숙(2014). 무용연구에서 데이터의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연구: '실기기반 연구'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33, 35-62.

- 조정희, 조기숙(2012). '춤추는 몸'의 인식에 관한 탐구- 무용작품 의 체험분석을 통하여. *한국무용 기록학*, 24, 149-167.
- 최효진(2020).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의 댄스문화 연구주제에 대한 고찰. *예술교육연구*, 18(4), 425-438.
- 한혜주(2016). 몸적학습을 통한 '몸의 인격성' 체험연구. *무용역사기록학*, 40, 271-302.
- Kim, Sue In(2021). Decentering and Centering East Asian Dance: Language and Location in Transnational Dance Research. *Dance Chronicle* 44(2), 192-196.
- Kim, Sue In(2023). The Unreconciled Dichotomy: Preservation and (Re)Creation of Dance Heritage in South Korea. *Dance Chronicle* 46(1), 20-39.
- McNamara, Andrew(2012). Six Rules for Practice-led Research. *TEXT: Journal of Writing and Writing Programs* S14, 1-15.
- Ravetto-Biagioli, Kriss(2021). Whose Dance Is It Anyway?: Property, Copyright and the Commons. *Theory, Culture & Society* 38(1), 101-126.
- Rodriguez Medina, Leandro & Wesley Shrum(2022). Going Virtual: Academic Conferences in the Age of COVID-19. *First Monday* 27(4), 4-4.
- Mainwaring, Madison(2015, August 6). "The Death of the American Dance Critic: Why are There so Few Mainstream Outlets Covering the Art Form?" *The Atlantic*, <<https://www.theatlantic.com/entertainment/archive/2015/08/american-dance-critic/399908/>, 2023.10.22.>.
- Whittenburg, Zachary(2023, July 5). "How a Lack of Dance Criticism in the U.S. Affects International Dancers' Visa Applications". *Dance Magazine*. <<https://www.dancemagazine.com/dance-criticism-and-visa-applications/>, 2023.10.22.>.
- 김수인(2022). 실천연구의 평가의 기준들, "Reconnect History: Here I Am"의 평가와 피드백. 부산: 아시아질적탐구학회 발표.
- 김수인(2023). "서울세계무용축제x무용역사기록학회 공동기획 'Reconnect History II: 각선의 약동' 리서치 퍼포먼스 작업 후기". *댄스포스트코리아*. <https://dancepostkorea.com/new/board/work/focus_view.php?search_part=b_title&search_focus=&page=1&b_idx=790, 2023. 11. 01.>.
- 대한실용무용학회 홈페이지. <<https://kspdance.or.kr/75>, 2023. 11. 05.>.
- 박소현(2022.02.02.). "나노사회의 도래, 파편화의 시대에서 보편적 가치를 찾다: 나노사회의 명암과 주목해야 할 트렌드". *한국산업인력공단 온라인홍보센터*. <<https://webzine.hrdkorea.or.kr/section/webzine/view?id=10660>, 2023. 10. 22.>.
- 송수연(2022.05.17). "팬데믹으로 익숙해진 온라인 소통... "국내 학회 국제화도 앞당길 것".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7>, 2023. 10. 22.>.
- 신대현(2022.04.26.). "속속 늘어나는 오프라인 학술대회...온라인 학술대회 운명은?"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2268>, 2023. 10. 22.>.

아르떼365(2010.06.01.). “다변화된 사회의 예술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져야”. **아르떼365**. <<https://arte365.kr/?p=3352>, 2023. 11. 02.>.

이현주(2023.06.30.).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1년 더 연장… 내년 6월 말까지”. **히트뉴스**.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09>, 2023. 11. 09.>.

춤웹진 “춤계 투잡 대해부”. <http://koreadance.kr/board/board_list.php?board_name=rating&page=1, 2023. 11. 24.>.

탁영채(2022.05.15.). “파편화된 개인, 나노 사회”. **포항공대신문**. <<https://times.postech.ac.kr/news/articleView.html?idxno=22107>, 2023. 10. 22.>.

댄저린 콜렉티브 <춤에 관한 노래는 적어도 9개는 필요하자> 홈페이지. <<http://audiovisualpavilion.org/lab/we-need-9-dance-songs-serious/>, 2023. 11. 01.>.

텔유어바웃허 프로그램 소개. <<https://www.espace.io/pay/page/e/program/page/139>, 2023. 10. 30.>.

학술전시행사 “스트릿x스테이지x미디어”. <<https://www.dcdcenter.or.kr/node/2292>, 2023. 11. 01.>.

한국실용무용학회 홈페이지. <<http://kaopdance.or.kr/index.php?device=pc>, 2023. 11. 05.>.

논문투고일 2023. 11. 28.

심사일 2023. 12. 06.

심사완료일 2023. 12. 15.

An Examination of Dance Discourse and the Dance Ecosystem in a Diversified Society

Kim, Sue In

Lecturer, Sun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aspects of discourse on and the ecosystem of dance in a diversified society. By analyzing discourses on dance research and dance criticism, I discuss the contents, methods, and media of discourse on dance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diversified society: diverse identities, digitalization-globalization, breaking away from existing customs, and convergence/interdisciplinary. This phenomenon of diversification affects the dance ecosystem and creates a discourse about dancers trying to survive in a precarious life. This study is expected to illuminate that along with the dance world phenomenon, the lives of people living within in a diversified society experience both de-centering and centralization at the same time.

Keywords: Diversified society(다변화 사회), Dance discourse(춤 담론), Dance ecosystem(춤 생태계), Decentering(탈중심), Neoliberalism(신자유주의)